

창원시, '제1회 환경경영기업대상' 시상 최고의 영예인 대상에 STX엔진(주)가 차지



쾌적한 도시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창원시(시장 박완수)에서는 환경관리 모범업체를 선정, 환경대상을 수여함으로써 기업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적극적인 환경시설 개선 유도로 쾌적한 공단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환경경영 우수기업 4개업체를 선정하여 지난해 12월 28일 환경경영 기업대상을 시상했다.

처음으로 시상한 창원시 환경경영 기업대상은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시설관리에 뚜렷하게 기여한 업체, 생산 활동을 환경친화적으로 운영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기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는 기업체의 자율적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시(市)가 정한 엄격한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였으며, 수상업체로는 대상 STX엔진(주), 금상 두산중공업(주), 은상 한국델파이디젤(주), 동상 르노삼성자동차(주)창원사업소이다. 이는 수상업체 모두가 환경친화적 기업관리에 기업주의 높은 관심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환경경영 기업대상을 수상한 기업체에 대하여는 기업체 정문입구에 환경경영우수기업체 인증패를 부착하여 환경관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 시 중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국내 전시박람회참가 부스 임차비 우대지원, 시장개척단 파견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에서 우선지원 혜택부여와 해외품질규격인증획득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되며, 향후 매년 1회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깨끗한 공단환경 조성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